

inside BIFC

권두칼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윤석

부산금융중심지 정책 소개

부산금융중심지 및
기획발전특구 인센티브 소개

부산금융중심지 유관기관 업무 소개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부산, 기술창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다-

전문가칼럼

한국거래소 상무 김정영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뉴스

inside FINANCE

국내금융시장 동향

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국제금융시장 동향

WAIFC 전무이사 Jochen Biedermann



국문 QR



영문 QR



부산국제금융진흥원
Busan Finance Center

Busan, Financial Hub

부산금융중심지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글로벌 금융 허브를 향해 도약하고 있는 전략적 거점입니다.
최근 부산은 GFCI(국제금융센터지수) 24위를 기록하며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디지털금융, 해양금융, 지속가능금융 등의 신성장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산이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 정책 검토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부산금융중심지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짚어봅니다.

가상자산 시장, 국제금융센터연합(WAIFC), 창업금융과 인재 양성 등 각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제안을 통해 금융중심지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조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inside BIFC

05

권두칼럼

격변의 시대와 국제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부산의 전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윤석

10

부산금융중심지 정책 소개

부산금융중심지 관련 인센티브 소개

15

부산금융중심지 유관기관 업무 소개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부산, 기술창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다-

18

전문가 칼럼

부산 자율형 사립고 설립
-지역금융인재 양성의 필요성-
한국거래소 상무 김정영

22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뉴스

2025 상반기 뉴스

inside FINANCE

24

국내금융시장 동향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28

국제금융시장 동향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변화와 WAIFC의 역할
WAIFC 전무이사 Jochen Biedermann

inside APPENDIX

32

부록

- 부산 일반 현황
- 부울경 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
- BIFC 입주기관 현황
- 부산금융중심지 일반현황
- 부산금융중심지 지도



AVANI

격변의 시대와 국제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부산의 전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윤석**

이윤석 선임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경제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은행 국제부 등을 거쳐 2005년부터 한국 금융연구원에서 근무하며,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추진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활동 등을 통해 금융중심지·가상자산·자금세탁 등 다양한 금융·경제 분야에서 연구 활동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본 원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1. 들어가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령 선포가 이루어졌으나, 2시간 반 만에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결국 선포 6시간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비상계엄 선포 11일만인 12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그로부터 111일만인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2025년 6월 3일 실시된 21대 대통령 선거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계엄령 선포 이후 정확히 반년만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 사이 대외적으로는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여 고율의 상호관세 무차별적 부과와 러-우 전쟁 종식, 그린란드 매입 의지 공론화 등을 내세우며 세계정세도 적지 않게 요동치고 있다.

이렇듯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그동안 국제금융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준비해왔던 부산은 어떠한 대응전략으로 격동의 시기를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우선 그동안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좀 더 세밀히 살펴본 후에 대응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보자. 블라디미르 레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수십 년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날 일들이 몇 주만에 일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2. 부산에 대한 국내외 평가

우선 부산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살펴보자. 글로벌 컨설팅그룹 Z/Yen사는 전 세계 119개 도시를 분석하여 매년 2번씩 ‘국제금융 센터지수GFCI’를 발표하는데 2025년 3월 기준 부산은 역대 최고 순위인 24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5년에 달성한 순위인 24위와 동일한 순위이나, 당시에는 전체 비교도시 개수가 82개에 불과해 지금의 24위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같은 24위라 할지라도 비교도시가 37개나 많아진 2025년의 24위가 보다 값진 순위여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하겠다. 2017년 한때 70위까지 밀렸던 부산은 2020년 3월에는 51위까지 올라서고, 2022년 9월에는 29위로 20위권에 진입하는 등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순위가 상승하며 금융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키워왔다.

2019년 부산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블록체인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부산금융중심지의 핵심공간

인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의 경우 2014년말 공공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처음 입주가 시작된 이래 지난 10년 동안 총 36개의 기관들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입주해 금융중심지로서의 공간으로 집적해 있는 상태이다. (공공금융 및 금융인프라 기관 15개, 국제기구 1개, 민간 금융회사 10개, 기타 기관 10개) 2025년말까지 준공예정인 BIFC 3단계 조성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이를 완공할 경우 블록체인, 핀테크 등 기술기반 기업들이 추가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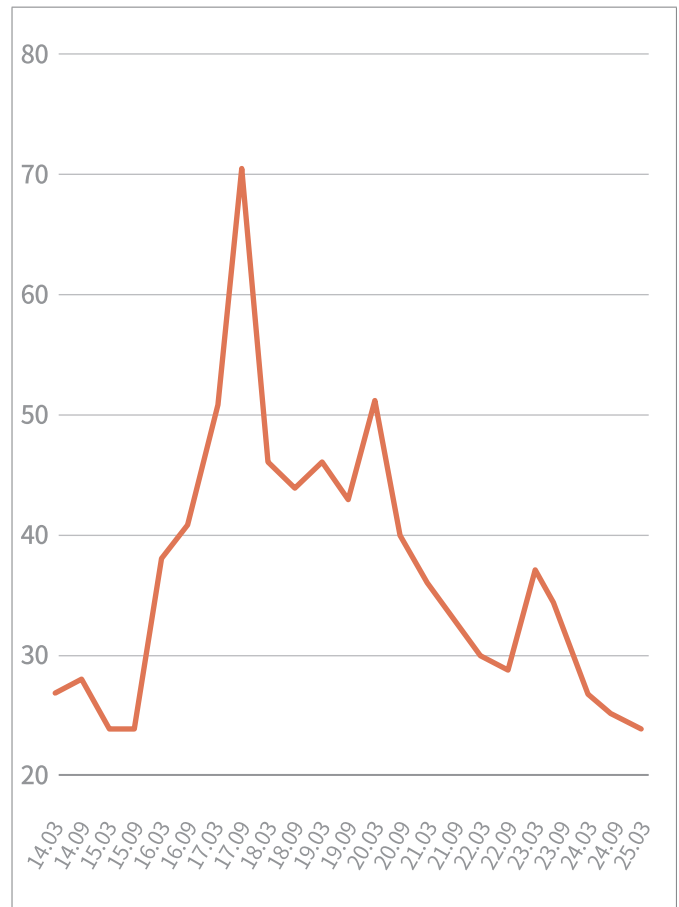
또한 2024년 6월에는 BIFC 3단계와 북항재개발지역 2단계가 ‘금융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과 주택특별공급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금융중심지로서의 집적화를 더욱 더 공고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표 1 GFCI 37 주요 도시 순위

순위	국제금융센터지수	핀테크 지수
1	New York	New York
2	London	London
3	Hong Kong	Shenzhen
4	Singapore	Hong Kong
5	San Francisco	San Francisco
6	Chicago	Los Angeles
7	Los Angeles	Washington DC
8	Shanghai	Singapore
9	Shenzhen	Chicago
10	Seoul	Seoul
11	Frankfurt	Guangzhou
12	Dubai	Boston
13	Washington DC	Zurich
14	Dublin	Dubai
15	Geneva	Belling
16	Luxembourg	Shanghai
17	Paris	Toronto
18	Amsterdam	Chengdu
19	Boston	Paris
20	Beijing	Montreal
21	Zurich	Sydney
22	Tokyo	Qingdao
23	Toronto	Busan
24	Busan	Luxembourg
25	Jersey	Berlin

주: 2025년 3월 기준
자료: Z/Yen사

그림 1 부산의 GFCI 순위 추이 (2014~2025)



자료: Z/Yen사



3. 국제정세 변동과 물류허브로서 부산의 기회

현재 국제정세에서 가장 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는 단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은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데, 이는 점차 커지고 있는 북극권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극항로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북극권은 희토류와 석유 등과 같은 지하자원의 보고,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수 있는 해상 운송항로서의 경제적 가치 및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군사요충지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더구나 지구온난화 심화로 해를 거듭할수록 북극권을 이용할 수 있는 연간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북극권의 전략적 가치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¹

따라서 북극항로가 개척되어 통행 및 운송이 활발해지면 동북아와 북극항로의 길목에 위치한 부산항은 아시아와 북유럽 및 북

미 대륙을 연결하는 세계 최적 물류허브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현재 중국에서 북유럽으로 수출하는 화물들은 싱가포르를 거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있는데,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싱가포르항 대신 부산항을 거친 물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부산까지 약 40일 정도 소요되는 22,000km의 항로가 15,000km로 줄어들고 소요일수도 30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북극항로 중 북미대륙으로 가는 북서항로를 이용할 경우 부산에서 뉴욕까지 가는 거리 역시 현재의 파나마운하 경유 항로보다 5,000km(18,000km→13,000km)가 줄어들고 시간은 40일에서 34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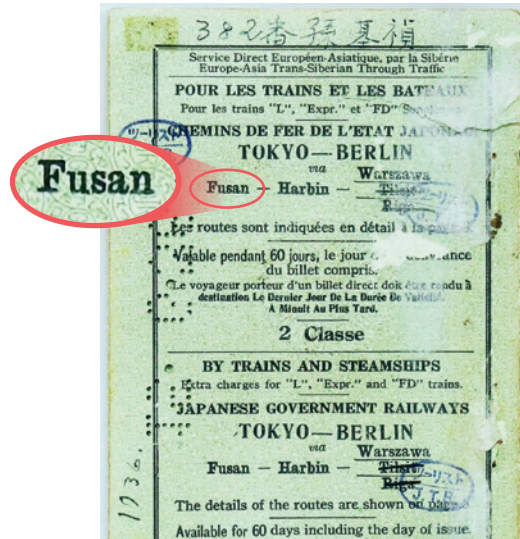
북극항로의 이용과 더불어 가능성이 높은 것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유라시아 철도연결 등 교통망의 변화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거론하고, 김정은과의 회담재개 및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까지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¹ 19세기 후반 미국 서부에서 일어난 '골드 러시(gold rush)'에 빗대 최근 북극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경쟁을 '콜드 러시(cold rush)'라 부르기도 한다.

고 있다. 이렇듯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해상항로뿐 아니라 북한을 경유해 우리나라의 철도가 중국 및 러시아의 대륙철도까지 연결되면 한반도를 통한 유라시아 대륙간의 물류 또한 활발해질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대륙철도 연결 기회를 발판삼아 부울경 지역을 물류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부산이 북극항로와 같은 해상물류의 거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철도 및 도로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육상물류의 거점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부산은 공항^{Airport}, 항만^{Seaport}, 철도^{Rail}를 연계하는 트라이-포트^{Tri-Port}로서 장기적으로는 싱가포르나 홍콩을 능가하는 글로벌 물류 허브 전략을 도모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 손기정 선수의 기차표



자료: 손기정 기념재단

그림 2 현재 항로와 북극항로 비교



4. 국제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부산의 전략

인류 역사를 되돌아 살펴보면 국제금융도시들은 그 자체로서 성장한 경우는 없었고, 주로 실물부문인 무역의 발전을 기반으로 국제금융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쳤다. 금융업의 출발이라고 여겨지는 이탈리아 은행들의 경우 15세기까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무역거점인 제노바나 베니스와 같은 국제금융도시들에서 탄생하였다. 16세기 들어서는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해상로를 확보한 네덜란드가 앤트워프 및 암스테르담을 국제금융도시로 성장시켰다. 이후 17세기 후반부터 20세기는 네덜란드에 이어 해상권을 장악한 영국이 ‘대영제국-Great Britain’이라는 구호 아래 런던뿐 아니라 식민지로 삼은 싱가포르와 홍콩을 국제금융도시로 발전시키게 된다. 그러나 1차 및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세계경제의 중심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며 뉴욕이 런던을 능가하는 국제금융도시로 성장하게 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국제금융도시는 역사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 경제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의 도시들이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맡게 되었다.

66

국제금융도시들은 실물경제 기반 위에서 성장해왔으며,
지금도 부산에겐 그 도약의 기회입니다.

부산이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99

이러한 국제금융도시들의 역사적 변천은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가? 결국 국제금융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자체가 세계 경제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이든 부산이든 국제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국제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전략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의 추격으로 인한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기반 약화로 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는 동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물류허브로 거듭나야 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북극권 개발에 대한 참여 및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한다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 및 지정학적 가치도 함께 커질 것이다.

런던은 2016년 결정한 브렉시트로 유럽내 영국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국제금융도시로서의 매력도 감소하고 있고, 홍콩도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하나둘씩 이탈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홍콩의 위상 약화로 오히려 기회를 얻고 있으나,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수에즈 운하를 경유한 수송수요가 감소하면서 물류허브로서의 매력 또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집권 이후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어 달러화에 대한 신용도 예전만 못하고 있어 뉴욕의 위상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긴 안목에서 보면 기존 국제금융도시들의 판세도 격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다. 부산은 예로부터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해왔던 주요 무역거점이었고, 6.25전쟁 때는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막아낸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였다.

이제 부산이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도시로 도약할 시점이다. 1936년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출전을 위해 국제열차를 타고 하얼빈-모스크바를 거쳐 베를린에 도착하였는데 그 출발점은 부산역이었다. 이제 다시 한번 부산이 출발점이 되어야 할 때가 왔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도약을 하고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 발돋움하는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다.



부산금융중심지 관련 인센티브 소개

금융산업과 지역 균형발전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금융중심지 및 기회발전특구 내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제 감면, 보조금 지원, 기반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통해
창업과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에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참고

진입방식에 따른
진입유형 분류

진입방식



특구內
신규 법인·지점
설립

진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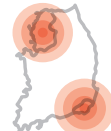
창업

신설



수도권
법인·지점 폐쇄
→ 특구 이전

이전



특구外
기존 법인·지점 유지
+ 특구內 추가 설립

창업

신설

* <연락사무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대상 아님
** 창업은 법인등기, 신설은 사업자등록 기준

세금 감면 제도

구분	지원대상	감면대상 및 정도	근거법령
국 세	금융중심지에 창업 신설 * 소득·법인세 - 금융 및 보험업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최초 3년: 100% 감면 - 이후 2년: 50% 감면	금융중심지법 제5조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부동산) 양도차익 법인세 지방 이전 법인 -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	- 양도차익법인세: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제3항
	법인세 지방 이전 법인 - 수도권에 3년 이상 본사둔 법인 - 2025년 12월 31일까지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 개시	최초 5년: 100% 면제 이후 2년: 50%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지 방 세	금융중심지에 창업 신설 취득세 (취득자산가 4-8%) - 금융 및 보험업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100% 면제	금융중심지법 제5조 제5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제14조 제1항
	지방 이전 법인 - 본사를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
	금융중심지에 창업 신설 재산세 (과세표준의 1%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100% 면제	금융중심지법 제5조 제5항, 남구 구세 감면조례 제9조
	지방 이전 법인 - 본사를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 최초 5년: 100% 면제 - 이후 3년: 50% 경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

* 금융중심지에 창업·신설: 서울은 제외(조특법 제121조의21 제1항)

※ 금융중심지 혜택은 2025년 이내 창업·신설

보조금 지원 제도

보조금 유형	지원대상	지원비율
입지보조금	금융중심지 신설 이전 - 외국: 3개국 이상 관할 지역본부, 한국 본사 - 국내: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본사	용지·건물 구입비(또는 임차료): 50% 이내 (50억원 한도)
설비보조금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금융중심지 창업 신설 -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사업용 설비 설치필요자금: 10% 이내 (10억원 한도)
교육훈련	금융중심지로 이전 - 내국인 10명 이상 고용 위해 1개월 이상 교육훈련	1인당 60만원 이하 (6개월간 2억원 한도)
고용보조금	금융중심지로 이전 - 내국인 10명 이상 상시고용	1인당 60만원 이하 (6개월간 2억원 한도)

※ 금융중심지 보조금은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그 지원한도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대하여 지원

02 기회발전특구

세금 감면 제도

구분	지원대상	감면대상 및 정도	근거법령
국 세	소득·법인세 기회발전특구 창업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 제1항 제1호-제18호의 모든 업종 적용	- 소득세 또는 법인세 5년간 100% 감면 - 이후 2년: 50% 감면 - 감면한도: 감면받는 연도까지 사업용자산*투자누계액 50% + (감면받는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 최대 2천만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6
	(부동산) 양도차익 소득·법인세 기회발전특구 로 이전 수도권 3년 이상 사업한 내국인 ①본사, ②공장, ③기업부설 연구소, ④데이터센터(대지/건물)	- 종전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불산입 또는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
	상속세 기회발전특구 로 이전 가업상속 받은 기업 - 기회발전특구 상시근무 인원이 기업 전체 종업원의 50% 이상	(공제대상)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피상속인 10년간 경영참여 (공제한도) 최대 600억원 기회발전특구 혜택 (가업상속 공제 요건 완화적용) ① 상속받은 사람이 대표이사 아니어도 됨 ② 기업의 주된 종목을 변경하더라도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1항, 제25항
	이자·배당 소득세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지구 ① 전용계좌가입(10년 이상 유지) ② 종류: 부동산투자회사, 민간투자법상 투융자집합투자지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지구 ③ 투자대상: 기회발전특구의 부동산, 기반시설 관련 자산 및 입주기업이 발행한 채권·주식 등에 집합투자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세율: 14% → 9% - 분리과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미합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5
지 방 세	취득세 (취득자산가 4-8%) 특구 에 창업 이전 (2026년 12월 31일까지)	50% + 조례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제6조의2
	재산세 (과세표준의 1% 이하) 특구 에 창업 이전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5년면제 + 조례 5년연장 50%경감	지특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항, 동구세 감면조례 제5조, 남구세 감면조례 제9조의2

* 사업용자산: ① 사업용 유형자산, ② 건설 중인 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무형자산, ③ 영업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

※ 기회발전특구 혜택은 2026년 이내 창업·신설·양도 시 적용

보조금 지원 제도

보조금 유형	지원대상	지원비율	
입지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구·남구 (중위)	중견기업: 23% 이내 중소기업: 40% 이내
		동구 (하위)	중견기업: 33% 이내 중소기업: 50% 이내
설비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기회발전특구 신설 이전 특구 투자 10억	중구·남구 (중위)	중견기업: 16% 이내 중소기업: 20% 이내
		동구 (하위)	중견기업: 20% 이내 중소기업: 25% 이내

※ 기회발전특구 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5-8 제14조, [별표5]에 근거

※ 기회발전특구내에 입주한 중견기업은 [별표5]에 8%p 가산, 중소기업은 10%p 가산



참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5-8 제14조 [별표5]
기회발전특구
보조금 지원 범위

지역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국비 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중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균형발전 하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2%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5%이내	





부산, 기술창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다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원장 서종군

하나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위원회,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정책금융기관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가다.

한국성장금융의 설립을 주도하여 투자운용본부장, 전무이사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산업화의 중심지에서 기술창업의 거점으로

부산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역사와 함께한 산업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조선, 물류,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산은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도시였으며,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환기를 맞은 지금, 부산은 더 이상 과거의 산업 구조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변

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부산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술창업이라는 새로운 동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 출범했습니다. 우리 기관은 부산 창업 생태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역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화 유산을 넘어, 미래 산업을 선도할 기술 기반 창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로 부산의 다음 도약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부산 창업 생태계의 현실 : 기회와 과제

부산은 다양한 산업 인프라와 해양·물류 중심 도시로서 유리한 지리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바라본 부산 창업 생태계는 여전히 수도권에 비해 미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현재 부산의 기술 창업 비율은 전체 창업 중 약 5.2%에 불과하며, 벤처투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전국 대비 2.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기반과 잠재력에 비해 다소 아쉬운 결과입니다.

특히, 많은 창업 기업들이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과제입니다. 이는 지역 내 기술 창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 특히 투자 연계망과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여전히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역 벤처 투자의 약 75% 이상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투자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혁신 잠재력이 수도권에 비해 제한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시사합니다.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의 비전과 전략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부산을 기술창업의 중심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첫째, 기술 기반 창업기업 비율의 확대입니다. 현재 5.2%에 머물고 있는 기술 창업 비율을 2030년까지 6.4%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단순한 수치 향상을 넘어, 지역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미래 유망 산업군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벤처 투자 시장 활성화입니다. 부산 지역이 벤처 투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8%에서 4.9%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약 2조 1천억 원 규모의 지역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창업기획자^{AC} 및 벤처캐피탈^{VC} 수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60개사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투자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부산 내에서 창업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셋째, 혁신 융합 공간의 확충입니다. 현재 172개에 불과한 융합 공간을 500개까지 대폭 확충해, 창업 기업 간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는 물리적·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공간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자, 연구자, 대기업 등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질적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부산은 스타트업 글로벌 도시 순위를 2030년까지 아시아 10위권 이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 이미지 개선을 넘어, 부산 경제의 체질 자체를 미래 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부산 창업 생태계 도약을 위한 4대 전략

부산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창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다음과 같은 4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기술 중심 창업 지원 강화

창의적 아이디어에만 의존하는 창업을 넘어, 탄탄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시장성과 투자 매력을 동시에 갖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민간 벤처캐피탈^{VC}과 연계하여, 기술 평가를 통한 투자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케일업 단계에 필요한 자금, 인재, 네트워크를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2. 지역 대학과의 연계 강화

청년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U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수, 연구진이 기술 창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생들과의 협업 모델을 강화하여 대학을 지역 창업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3. 투자 생태계 조성

창업 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혁신성장펀드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태펀드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이 펀드들을 활용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자본을 부산으로 적극 유치할 것입니다.

4.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부산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필수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다양한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FLY ASIA'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FLY ASIA는 아시아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자,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부산으로 초청하여 교류하고 협력하는 대규모 창업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부산의 스타트업들은 해외 투자자와 직접 만나 투자유치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FLY ASIA를 기점으로, 해외 진출을 위한 사전 컨설팅,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데모데이 참가 등 보다 실질적인 후속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산은 단순히 국내 창업 시장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무대로 삼는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성장할 것입니다.

부산의 다음 10년을 위해

부산은 이제 과거 산업화의 성공 신화를 넘어, 기술 기반 창업의 새로운 신화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지역 경제의 미래는 결국 얼마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창업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심점이 되어, 기술력 있는 창업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부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인, 투자자, 대학, 연구기관,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부산의 혁신 성장, 그리고 창업 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은 이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자율형 사립고 설립 -지역금융인재 양성의 필요성-



한국거래소
상무 김정영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부장, 전략기획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풍부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로 재직 중이다.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을 주도하며 주주가치 제고 및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글로벌 선진거래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정책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Q.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 사립고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한국거래소에서 지향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A.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 사립고는 모두 사립학교법에 따라 운영되지만, 학교 운영의 자율성, 교육과정의 편성, 학생 선발 방식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반 사립고는 교육청의 표준 교육과정을 따르며, 행정·재정 운영 면에서도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 편성과 방과 후 프로그램, 심화 학습 운영, 교원 채용, 그리고 학생 선발 등에서 더 넓은 자율권을 부여받습니다.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한국거래소, BNK금융지주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는 단순 '명문 사립고'를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금융교육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교육 인프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도시이자 금융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함께 제고하고자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자본시장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공공성 및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 준비 과정에서도 이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장학제도,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기회 제공,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 등도 함께 구상하고 있습니다.

Q. 구체적인 커리큘럼, 선발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커리큘럼과 학생 선발 방식은 향후 전문기관의 컨설팅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며, 교

육청 가이드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거래소가 지향하는 방향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금융특화’와 ‘전인교육’의 균형을 중시할 것입니다.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금융기초부터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 실무형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윤리교육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춘 인재로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생 선발에 있어서는 교육 당국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단순히 성적 우수자 위주의 선발이 아닌 잠재력과 동기를 중시하는 입학전형 설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통합 전형을 통한 교육 소외계층 선발과 우수지역인재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66

부산시와 한국거래소 등은
미래 금융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금융 특화 자율형 사립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금융이 융합된 혁신 모델을 통해
부산의 금융중심지 도약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99

Q. 자율형 사립고가 추구하는 특징적인 금융교육은 무엇인가요?

A. 현재 추진 중인 금융 자사고는 일반적인 ‘고등학교 교육’을 넘어, 대한민국 금융인재 양성의 거점을 지향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실무 기반 교육」

교실 수업을 넘어서 ‘실제 시장을 체험하는 수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식·채권·파생상품 모의투자, 투자중개·자산운용·기업금융 실습, 실시간 데이터 기반 분석 실습, 시장 제도 워크숍 등을 구상 중입니다. 부산에 소재한 다양한 금융기관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업 융합형 금융 커리큘럼」

핀테크, ESG금융, AI기반 금융교육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융합형 교육과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금융을 단일 교과가 아닌, 기술·법률·통계·AI 등의 융합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기반 역량 강화」

전 수업 과정에 걸쳐 국제금융환경에 대한 이해와 외국어 활용 능력을



함께 배양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세계 주요 금융중심지(뉴욕, 싱가포르, 홍콩 등)와의 교류 프로그램, 글로벌 경제 경시대회 참여, 국제금융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Q. 자율형 사립고 설립이 부산금융중심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A. 부산이 진정한 국제금융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관 유치나 물리적 기반 확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금융 전문인력의 육성 생태계가 함께 조성되어야 하며, 바로 이 점에서 금융자사고 설립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지역 내 금융 인재의 선순환 구조 형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권에 집중된 교육 인프라로 인해, 부산의 청소년들이 진로를 위해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

습니다. 금융특화 자사고가 설립되면, 지역 내에서 우수 인재 양성 및 정착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인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둘째, 금융기업 유치의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지방에 본사나 센터를 이전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우수 인력 확보와 직원 자녀들의 교육환경입니다.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금융자사고의 존재는, 부산이 ‘금융기관과 그 직원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도시’로 인식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부산의 금융문화 확산과 저변 확대입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금융에 대한 이해와 실무 역량을 기르는 교육은 부산 지역사회의 금융 리터러시^{literacy}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부산이 진정한 금융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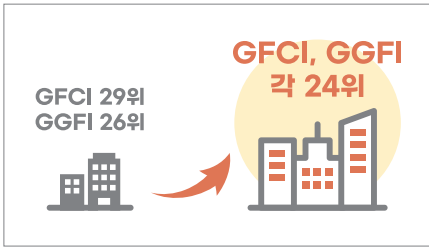
Q. 마지막으로, 자율형 사립고 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과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금번에 추진하는 금융자사고 설립은 단순한 고등학교 개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미래 금융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국가의 금융 경쟁력을 높이는 사회적 투자입니다.

현재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거래소, BNK금융지주뿐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며, 부지확보 및 학교법인 설립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시 위주의 명문고가 아니라 금융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공간이 되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번 금융자사고 설립은 입시위주의 교육을 넘어, 금융과 교육이 융합된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산이 금융중심도시로서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학교가 대한민국 금융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부산금융중심지, GFCI 및 GGFI 24위 기록



- GFCI37, 24위 기록
 - 2025년 3월 발표된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 119개 나라 중 24위(아시아권 9위)
 - 역대 최고 점수인 728점 기록
- GGFI15, 24위 기록
 - 2025. 4월 발표된 국제녹색금융지수(Global Green Finance Index)
 - 95개 나라 중 24위
 - 역대 최고 순위인 24위 기록

FATF 교육 연수생 대상 IR 개최



- 일시** 2025.5.13.(연중 개최)
- 참석자** 안순구 금융연구2실장, 대외협력총괄팀, FATF 교육 연수생 42명
- 내용** - 부산금융중심지 발전현황 소개, Q&A 및 네트워킹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의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국제규범 이행 현황을 평가 및 감독하는 국제금융기구

부산글로벌금융허브포럼 국제금융생태계 조성 사례 발표



- 일시** 2025.3.11.
- 발표자** 안순구 금융연구2실장
- 발표내용** - 글로벌 금융거점 혁신 사례 및 부산의 정책방향
 - 싱가포르·홍콩·일본의 국제금융생태계 조성 사례
 - 부산 글로벌 금융허브 발전을 위한 육성 방향

Z/Yen 그룹 회장(前 런던금융특구시장) 마이클 마이넬리 교수 면담



- 일시 및 장소** 2025.3.27., 서울
- 참석자** 마이클 마이넬리(Michael Mainelli) 교수, 안순구 금융연구2실장, 박태혁 역외금융센터정책팀장
- 논의내용** - 부산금융중심지 최근 동향 소개(D-valley,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등)
 -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BDAN, CBDC 프로젝트 한강 관련 부산 디지털금융 관련 협력방안
 - Z/Yen과의 향후 협력사항 등

부산금융중심지 경제협력 네트워크 실무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25.3.28.,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회의실
- 참석자** BIFC 입주기관·유관기관·연구기관·행정기관 관계자, 학계·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
- 논의내용**
- 기관별 사업 및 연구 소개
 - 협력사업 의견 제안 및 발굴

제13회 부산금융중심지 포럼 개최



- 일시 및 장소** 2025.3.27., 한국예탁결제원 대회의실
- 참석자** 정책기관 관계자, 금융권 학계 및 업계 전문가 30여 명
- 목적** 해양금융 특화 중심지 전략 논의
- 발표내용 및 발표자**
-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선박 투자 촉진 및 민간 선박금융 활성화 전략(이동해 해양금융센터장)
 - 친환경 선박 조세리스 제도 주요 쟁점과 부산금융중심지 및 기회발전특구 연결 방안(법무법인 광장)

부산국제금융센터와 함께하는 BFC 음악회 개최



- 일시** 2025.4.1.
- 장소** 기술보증기금 본사 1층 로비
- 연주** 부산시립예술단
- 목적**
- 예술과 금융의 상호작용을 통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금융중심지 방문객 및 입주기관 종사자들의 문화생활 지원

*2025년 하반기 BIFC 1층 로비에서 공연 재개 예정

주한영국대사 및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와의 네트워킹



- 일시** 2025.5.22.
- 참석자**
- (주한영국대사) Colin James Crooks
 - (주한영국상공회의소) 대표 Lucinda Walker, 부산 대표 로라 맥루키 등
- 주요 내용**
- 부산금융중심지 소개
 - 역외금융생태계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논의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1. 법인의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기존 제도

2017년 정부는 가상자산 투기 열풍 대응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까지 엄두에 두고 강도 높은 대응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참여를 금지하였다.

금융과 가상자산 간 리스크 절연을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 취득·지분투자를 일체 금지하고, 일반 법인에 대해서도 은행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사실상 금지하였다.

2. 가상자산을 둘러싼 시장의 변화

① 글로벌 동향 : 해외는 법인 위주로 제도화

2025년 1월 미 트럼프 정부는 i)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CBDC 폐지, ii) 규제·입법 재검토를 위한 워킹그룹 출범, iii)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 가상자산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또한 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스테이블코인의 규율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이 과정에서 해외에서 개인보다는 법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및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 Coinbase의 기관투자자 비중은 2022년 기준 약 80%이다.

② 블록체인 기술 활용도 확대 : 가상자산과 기업 간 연계성 강화

국내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서비스 제공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 사업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NFT 발행, 메인넷 구축, 가상자산 지갑, 보안·인증 서비스 등으로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은 국내 기업이 관련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규제를 피해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로 자금과 인재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6월 국내 상장기업의 보유 가상자산은 약 4천억원인 반면, 2024년 해외 현지 법인의 보유 가상자산은 약 6조 5천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③ 우리 규율체계 정비 시급 : 2단계 입법의 선결과제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으로 예치금 보호, 불공정 거래 단속 등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법률이 마련되었다. 한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가상자산 연관제도를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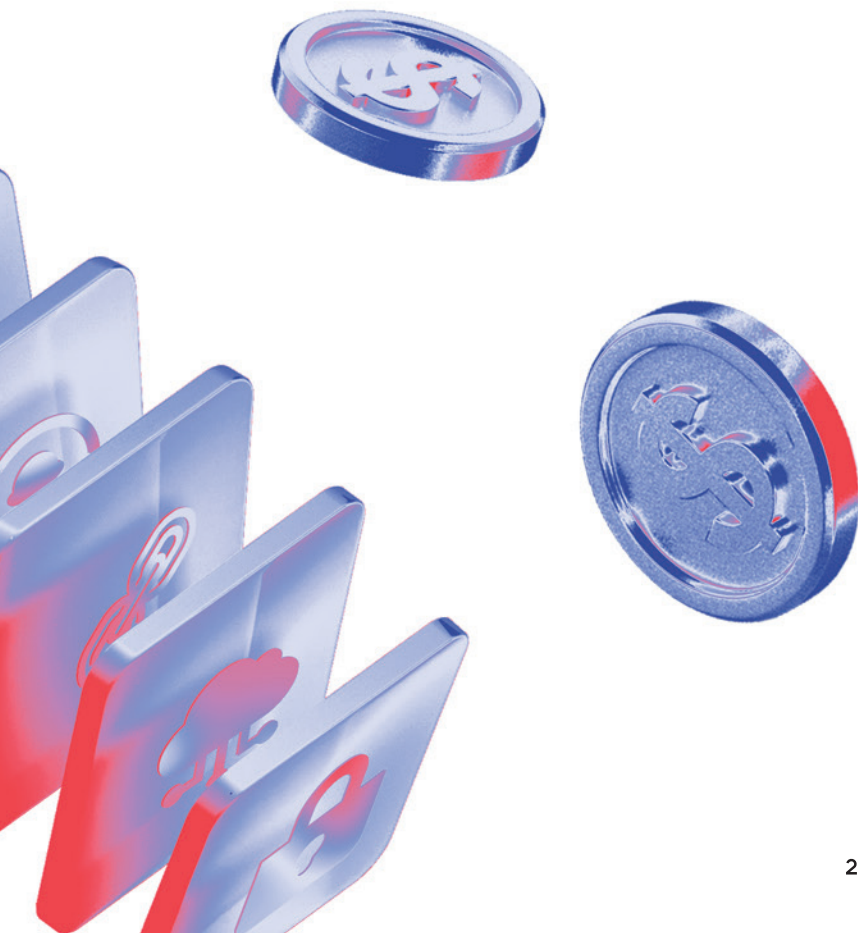
이에 더해 2단계 입법으로서 사업자 진입 및 영업행위 규율, 발행 및 공시 등 거래규제 제도를 정비하고, 자율 규제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함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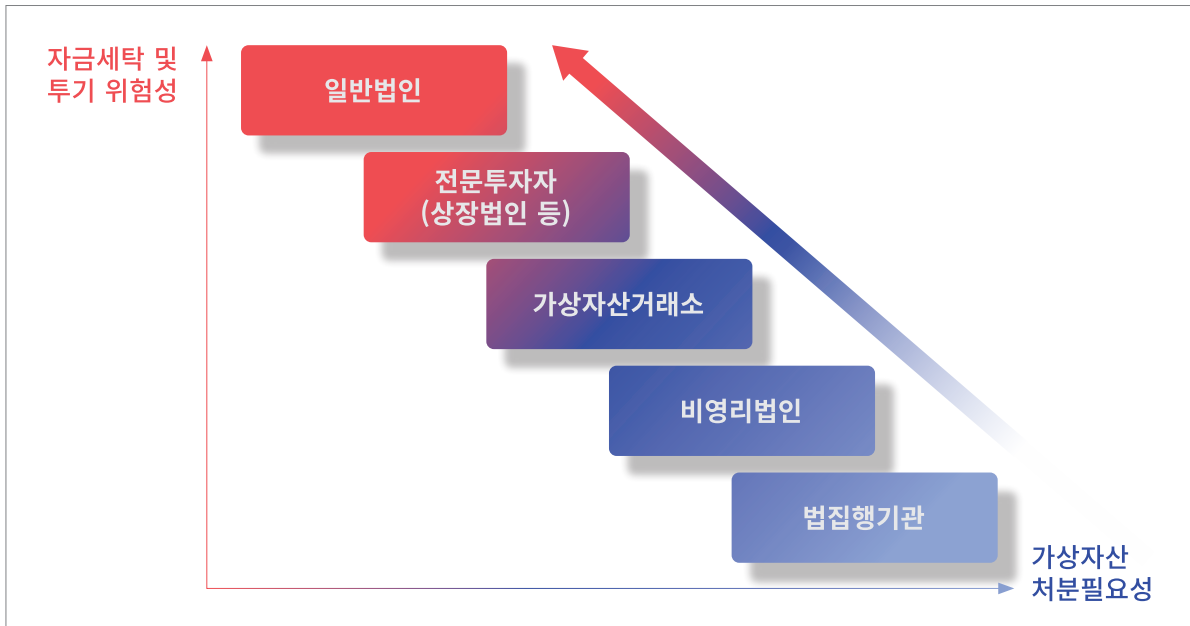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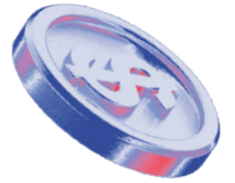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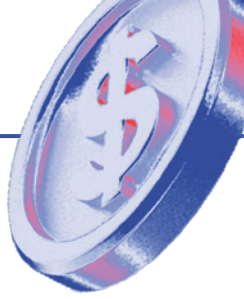
한편, 법인의 가상시장 참여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가상자산 현물 ETF도입 등 글로벌 시장에 발맞춰 가기 위한 최소한의 선결 과제이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주된 이용자가 법인이며,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가상자산 현물 ETF를 운용하기 위해 기초자산인 가상자산 현물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3. 가상자산위원회의 논의 내용 : 단계적·점진적 허용 권고

2024년 11월 6일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 실명 계좌 개설 관련 이슈를 우선 논의하였다. 법적으로 법인 계좌 발급 제한은 없으나, 오랜 기간 금지 관행이 누적되어 온 만큼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법인계좌 개설을 허용함이 바람직함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가상자산의 현금화가 필요한 법인의 경우 관련 리스크가 적은 만큼 가법인계좌 개설을 우선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투자 및 재무목적의 매매를 허용하여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기관 투자자부터 단계적, 시범적 허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 및 보유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024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가상자산위원회위원, 기재부, 금감원, 법집행기관, 대학교, 복지단체, 가상자산거래소,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하여 총 12회의 가상자산분과위원회 및 실무TF를 개최하여 가상자산시장 법인 참여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4. 법인 참여 로드맵

가상자산 연관성, 관련 리스크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선정

- ① (1단계) 법집행기관(즉시),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25년 2분기~)에 대해 현금화 목적 법인계좌 개설 우선 허용
- ② (2단계)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투자자(상장법인,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 허용('25년 하반기~)
- ③ (3단계) 일반 법인까지 전면 계좌 허용은 추후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① [1단계] 현금화 목적의 거래 허용

① 법집행기관 : 작년 말부터 계좌발급 지원 중

법집행기관이란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채납재산 강제징수 등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에 관한 법적 근거 있는 기관으로서 검찰,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후 계좌발급 수요 및 가상자산 이전·매각 절차 마련 여부 등에 따라 유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계좌 추가발급을 검토 및 협의할 수 있다.

2024년 11월부터 법집행목적의 계좌발급을 지원하며, 향후 기관별 수요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이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계좌발급을 추진한 결과, 2025년 1월 202개의 계좌가 신규 개설되었다.

② 비영리법인 : 내부통제기준 등 마련 후 계좌발급 ('25년 2분기~)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 대학교 학교법인은 가상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 및 결산서류 공개, 외부 회계감사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현금화 기준·절차 등이 미비해 처분 시점·방법에 따라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향후 기부·후원 목적의 가상자산 수령·처분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가상자산거래소 : 가이드라인 등 마련 후 계좌 발급 ('25년 2분기~)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인건비 세금 납부 등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한 매도를 허용한다.

거래소의 매도는 자기매매와 유사해 매매 시기, 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와 이해 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후 순차적으로 계좌발급을 추진하도록 한다.

공동 가이드라인에서 가상자산의 종류, 일간·월간 매도 물량, 자기거래소 매매를 제한하도록 하는데, 매매 목적·가격·수량·기간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사전공시하도록 하고, 감독 당국에 보고하도록 한다.

② [2단계]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 시범 허용 : '25년 하반기~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주권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등에게 투자·재무목적의 시범 거래를 허용한다.

투자·재무목적의 거래는 가상자산 현금화를 넘어,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기관 투자자의 매수·매도 거래부터 시범 거래를 허용하고,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통해 개인 중심의 국내 시장 변동성 완화 및 건전성을 도모하려 한다.

또한, 국내 블록체인 사업 활성화 및 가상자산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재무적 니즈에도 부응하고자 하는데, 특히 상장기업이 국내외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연관 기업에 대한 주요 투자자인 측면을 고려하면 중요한 부분이다.

위원회는 광범위한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됨에 따라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이 요구되는 만큼, 향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보완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개별 전문투자자별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은행·거래소의 세부심사를 거쳐 법인계좌 발급 여부 결정한다.

③ [3단계] 일반법인 거래 전면 허용 : 중장기 검토

위원회는 전문투자자의 시범 허용 경과 등을 지켜보고, 2단계 입법 및 외환 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전제로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일반 법인 거래 전면 허용의 선결과제로서 ① 투자 권유 등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마련, ② 2026년까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정비, ③ 2027년까지 OECD 회원국 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거래 정보 교환체계 마련하여 CARF(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를 구축한다.

5.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 및 기대효과

2025년 2월 중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 후, 금감원, 은행연합회, DAXA,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등으로 민관 TF를 구성하고, 법인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내부통제기준, 가상자산거래소 매각 공동 가이드라인 DAXA를 마련 및 발표할 것이며, 하반기 중에는 가상자산 매매 법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보완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변화와 WAIFC(국제금융센터세계연합)의 역할



WAIFC

전무이사 Jochen Biedermann

WAIFC(World Alliance of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국제 금융센터세계연합)의 전무이사로, 2018년 설립 이래 조직의 성장을 이끈 핵심 인물이다. 비영리 국제기구인 WAIFC를 통해 각국 금융중심지 간의 협력 증진, 모범 사례 공유, 글로벌 정책 대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두바이, 홍콩, 나이로비 등 세계 주요 금융도시이자 WAIFC 회원국과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아시아 금융 허브의 잠재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역내 금융 통합과 글로벌 자본 유입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과제들에 대해 활발히 발언하고 있으며, 국제적 시각과 실무적 통찰을 제공하는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1. 급변하는 환경

로널드 오한리 Ronald P. O'Hanley State Street 회장 겸 CEO는 최근 세계경제포럼 WEF 웹사이트의 블로그 기고문에서 세계 금융을 형성하는 다섯 가지 변혁적 트렌드로 탈세계화, 탈탄소화, 부채, 디지털화, 인구 구조 변화를 제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다섯 가지 트렌드가 “정책 결정자와 투자자에게 다차원적 의사결정의 여지를 준다. 이러한 트렌드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기 때문에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관점을 밝혔다.

이것이 금융중심지에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지난 15년간 금융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 방식에서 중대한 변화를 목도해왔다. 핀테크 덕분에 신규 사업자가 전통 금융업자보다 사용자 중심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며 빠른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차세대 자율형 인공지능 Agentic AI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할 것이며, 금융기관의 프런트오피스, 미들오피스, 백오피스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속가능성과 넷제로 Net-zero로의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 대부분 지역의 핵심 과제이다. 금융중심지는 탄소배출권 시장 형성, 기업 지속 가능성 공시 의무화 촉진, 녹색 채권 발행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순환 경제 Circularity나 블루이코노미 Blue Economy, 해양금융에 대한 투자는 지구의 유한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동시에 지정학적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관세 및 무역 장벽의 새로운 흐름은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유럽 및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 사회 고령화가 장기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 재정이 인프라, 에너지 전환, 국방비 지출로 인해 압박받는 상황에서 연금 및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공공부채 수준 또한 다수의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이들 국가가 차기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2. 금융중심지 간 협력이 핵심

금융중심지 간 경쟁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다. 실제 다음과 같은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 (1) 상위 5대 국제금융중심지 간 경쟁(예: 뉴욕, 런던 등)
- (2) 지역 또는 국가 단위 금융중심지 간 경쟁(예: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간)

반면, 부산과 유럽, 아프리카 혹은 미주의 다른 금융중심지 간에는 사실상 경쟁구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 차원에서는 소규모 경제권의 몇몇 금융중심지가 특화 전략을 통해 성공하기도 한다.

일례로, 스위스는 자산관리 Wealth Management,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는 자산운용 Asset Management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날에는 AI, 디지털자산, 지속가능금융 혹은 블루이코노미로도 알려진 해양금융 등 신흥 금융서비스 분야에 특화해 부상할 기회가 충분하다.

공통 표준에 대한 합의와 모범사례 공유는 이러한 신흥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WAIFC는 국제금융중심지^{IFC} 간 글로벌 플랫폼으로 양자 간, 지역 간,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촉진하고 금융 혁신을 도모하며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선도하고 있다.

WAIFC의 사명은 국제금융중심지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견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속적인 대화와 모범 사례 공유를 활발히 하고,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다.

3. 국제적 모범 사례

올해 2월, WAIFC는 “인재 유치, 육성, 유지를 위한 전략^{Strategies for Attracting, Developing, and Retaining Talent}” 보고서를 발표했다.

역량 강화 문제부터 국경 간 인재 이동, AI 및 지속가능금융 분야의 융합 역량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산업 환경은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원격 근무, 개인의 성장 욕구, 글로벌 인재 이동, 미래 역량 확보, 개인 및 조직 목표 간 일치 등의 요인이 인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진화하는 금융서비스 산업의 인재 생태계에 대한 국제적 시각을 제공하며, 채용 시 겪는 어려움, 신기술 영향, 그리고 이미 시행 중인 모범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인재 확보, 교육, 유지를 위한 혁신적인 전략을 강조하여 금융 부문이 회복력과 적응력을 갖추어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순항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표이다.

작년 5월에는 “금융 속 여성: 모범 사례 총람^{Women in Finance: A Compendium of Good Practice}”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금융 생태계 내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안내서로 젠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해관계자 전원이 이사회 및 위원회 내 성비 균형 보장, 컨퍼런스 및 패널에서의 균등한 참여 촉진, 실효성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도

입 등을 추진하여 여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촉구한다. 본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덕분에 부산광역시와 한국 주요 은행들이 직장 내 성평등과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같은 달, WAIFC는 “녹색 전환 촉진을 위한 공급망 금융 강화^{Enhancing Supply Chain Finance for the Promotion of Green Transformation}”라는 백서도 출간하였다. 해당 백서는 오늘날 글로벌 공급망이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몇 년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빠르게 확장되었지만, 변화하는 경제·금융 환경에 맞춰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공급망을 통해 넷제로^{Net-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환 전략^{transition strategy}을 실행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WAIFC 회원사는 이러한 전환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있어 금융시장의 역할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경제권의 여건에 맞게 해당 방안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도 모색하였다.

디지털화와 여러 경제권의 성장전략에서 디지털화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그중에서도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데 핵심 기능을 하고 있다. 동시에 은행이나 투자기관 같은 기존 금융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 무역회사 등 새로운 금융 주체가 공급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WAIFC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 생태계 조성^{Crafting the Digital Sustainability Reporting Ecosystem}”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지속 가능성 공시 생태계를 조망하며, 금융중심지가 공공-민간 협력 및 데이터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금융을 주도하는 방법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국제 협력과 혁신적 디지털 솔루션이 정보의 품질과 접근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하며,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이 지속 가능한 관행을 채택할 수 있도록 고무한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북극성^{North Star}” 비전을 통해 금융, 지속가능성, 탄소, 기후 관련 데이터가 디지털 지속 가능성 보고 체계와 개방형 데이터 교환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통해 매끄럽게 교류되는 미래상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술과 표준을 채택하는 것은 업무 프로세

부산은 WAIFC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지속가능 금융, 해양금융 등 미래 금융 분야에 특화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6년 WAIFC 연차 총회 유치는 부산의 위상 제고와 국제 금융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스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의사결정을 개선하여 지속가능 금융의 보다 효율적인 미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 국제적 명성 구축

왜 금융중심지의 ‘명성’이 중요한가?

자주 인용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er Index, GFCI)’는 Z/Yen 그룹 Z/Yen Group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금융중심지의 평가에 기반하여 연 2회 발표한다. 설문 응답자는 특정 금융중심지가 향후 몇 년 내에 얼마나 중요해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한다. GFCI는 정량 지표도 고려하지만 평판이 최종 순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우수한 평판은 해외 금융기관, 스타트업, 투자, 인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준다.

WAIFC는 금융중심지가 스스로를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회원사는 각국 금융중심지를 서로의 주요 컨퍼런스에 초청하며, 전세계 주요 금융 행사에 참석하고 연설하며 다른 중심지들로부터 인정 받는 것은 여타 방법과 더불어 강력한 명성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WAIFC는 간행물, 인터뷰, 기고, 웨비나, 기타 행사를 통해 회원사의 통찰력 있는 리더십(thought leadership)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5. 부산을 위한 모범사례 - 주목할 금융중심지들

WAIFC의 회원사 중 부산과 유사한 기회와 과제를 지닌 금융중심지들이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슈투트가르트는 독일 산업기반의 핵심이다. 슈투트가르트 금융중심지는 슈투트가르트 증권거래소 Stuttgart Stock Exchange와 LBBW 은행 LBBW Bank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슈투트가르트는 독일의 또 다른 금융중심지, 특히 프랑크푸르트와 경쟁하면서 지역 기반의 강력한 금융 허브로 부상했다. 실물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혁신에도 주력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2025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프랑크푸르트와 공동으로 WAIFC 연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몰타는 유럽연합 소속의 작은 섬나라이다. 디지털 자산 및 블루이코노미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EU의 지속 가능성 표준을 적극 활용해 해양금융을 발전시키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UCITS 투자펀드 및 자산관리 서비스의 선구자로서, 최근 몇 년간 지속가능금융, 특히 녹색 채권 발행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Luxembourg for Finance 룩셈부르크 금융업 국제 홍보 및 지원 기관은 Ambitions 2030을 통해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원대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설정했다. 룩셈부르크는 불확실한 환경 속 안정성 확보, 유럽 경쟁력 강화, 혁신 주도 및 지속 가능성 추구를 통해 글로벌 투자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시아에서는 오사카가 2025년 엑스포를 계기로 도쿄와 경쟁하며 금융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하다. WAIFC 대표단은 작년 10월 오사카를 방문하였고, 오사카부지사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호찌민은 베트남이 새로 지정한 금융중심지이다. 아세안(ASEAN)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강력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 WAIFC 대표들은 올해 초 몇몇 WAIFC 회원사들을 접견한 베트남 상임 부총리와 직접 대화를 나눴다.

6. 2026년 부산에서 개최될 WAIFC 연차 총회: 빛날 기회

부산은 2026년 가을, WAIFC 연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부산의 성과를 알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WAIFC 회원사들은 부산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부록 INFO

- 부산 일반 현황
- 부울경 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
- BIFC 입주기관
현황
- 부산금융중심지
일반현황
- 부산금융중심지
지도

부록

부산 일반 현황

	단위	통계	전국대비 비중(%)
--	----	----	------------

GRDP 규모

부산	십억 원	114,165	4.7
부산·울산·경남	십억 원	341,701	14.2
전국	십억 원	2,404,191	100

부산GRDP 산업별구성

농림어업	%	0.4	1.2
광업·제조업	%	17.4	3
건설업	%	5.2	4.3
서비스업(금융보험업)	%	75.8(6.8)	5.7(5.3)
전기가스증기업	%	1.1	4.4

부산·울산·경남 GRDP 산업별구성

농림어업	%	1.4	12.8
광업·제조업	%	38.1	19.4
건설업	%	5.2	10.2
서비스업(금융보험업)	%	53.6(4.6)	11.9(10.4)
전기가스증기업	%	1.6	18.1

컨테이너 처리량

부산	천TEU	23,154	76.8
전국	천TEU	30,147	100

거주환경(부산)

면적	km ²	771.3	0.8
인구	명	3,278,280	6.4
기온	°C	16	
강수량	mm	2,191.4	

외국인관련(부산)

외국인 등록인구	명	49,409	
국제 학교	개	7	
다문화 학교	개	2	
외국인 관광객	명	1,900,632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해양수산부

부울경 지역 금융기관 점포 현황

단위: 개

기관명	2024년 말
합 계	3,221
시중은행	291
우리은행	68
SC제일은행	16
KB국민은행	85
한국씨티은행	3
신한은행	54
KEB하나은행	65
지방은행	336
부산은행	192
제주은행	1
경남은행	143
특수은행	290
IBK기업은행	79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산업은행	16
NH농협은행	176
SH수협은행	16
외은지점	1
중국공상은행	1
증권	100
교보증권	1
상상인증권	1
유안타증권	5
하나증권	5
IBK투자증권	3
BNK투자증권	3
미래에셋증권	8
메리츠증권	1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1
대신증권	5
유진투자증권	2
DB금융투자	4
한국투자증권	8
현대차증권	5
NH투자증권	6
신한투자증권	5
KB증권	11
한화투자증권	6
삼성증권	4
신영증권	3
SK증권	7
하이투자증권	6
부동산신탁	1
우리자산신탁	1
투자자문	2
오리엔트투자자문	1
밸류아이투자자문	1
자산운용	6
해디브자산운용(주)	1
주식회사 단디자산운용	1
이지스자산운용	1
iM투자파트너스	1
(주)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1
으뜸자산운용(주)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2
오픈트레이드	1
주식회사 타이탄인베스트	1

기관명	2024년 말
생명보험	293
에이비엘생명	11
KB라이프생명	1
삼성생명	96
교보생명보험	87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9
KDB생명보험	10
DB생명	10
메트라이프생명	17
동양생명	15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1
NH농협생명	13
흥국생명보험	11
푸본현대생명	2
손해보험	516
캐롯손해보험	2
한화손해보험	47
현대해상화재보험	80
삼성화재	80
SGI서울보증	11
약사손해보험	5
하나손해보험	7
(주)KB손해보험	68
DB손해보험	81
MG손해보험	7
롯데손해보험	15
농협손해보험	7
흥국화재해상보험(주)	9
메리츠화재	97
신용카드	76
우리카드	1
비씨카드	1
현대카드	3
롯데카드	12
삼성카드	33
KB국민카드	4
하나카드	1
신한카드	21
리스할부금융	68
오릭스캐피탈	1
메리츠캐피탈	2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1
애규온캐피탈	1
제이비우리캐피탈(주)	4
제이비우리캐피탈(주)	11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2
제이엠캐피탈	1
산은캐피탈	1
현대커머셜	1
KB캐피탈	3
시너지아이비투자(주)	2
현대캐피탈	7
MG캐피탈	1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3
메르세데스벤츠	2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2
NH농협캐피탈	2
한국캐피탈(주)	1

기관명	2024년 말
우리금융캐피탈	6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주)	3
오케이캐피탈	1
BNK캐피탈	9
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1
폭스바겐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1
하나캐피탈	1
신기술통용	3
(주)에스비파트너스	1
롯데벤처스(주)	1
농심캐피탈	1
신용정보	56
에프앤유신용정보(주)	1
아이비케이신용정보(주)	1
농협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5
SGI신용정보	4
세일신용정보(주)	6
코아신용정보	2
신한신용정보	2
새한신용정보(주)	6
고려신용정보(주)	6
미래신용정보	6
에스엠신용정보	4
BNK신용정보	2
에이앤디신용정보	1
오케이신용정보	2
(주)이크레더블	1
KB신용정보	1
케이에스신용정보	3
제이엠신용정보	2
우리신용정보	1
저축은행	38
애규온저축은행	1
솔브레인저축은행	1
웰컴저축은행	1
흥국저축은행	1
DH저축은행	1
우리저축은행	2
동원제일저축은행	3
OSB저축은행	2
대신저축은행	2
(주)IBK저축은행	6
국제저축은행	1
고려저축은행	3
BNK저축은행	3
진주저축은행	6
에가람저축은행	2
조흥저축은행	2
에스앤티저축은행	1
신탁	209
회원농협	770
회원수협	138
산림조합	25

자료: 금융감독원

BIFC 입주기관 현황

2024년 말 기준 / 단위: 명

63층 메인빌딩	총인원	3550
63(d-space)	한국시티은행	3
	UIB	1
	라이나원	1
50~51, 55~62	한국거래소	491
55	IBK창공	20
53	캠코선박운용	15
	자금세탁방지지구 교육훈련기관	10
52	신한은행	5
	부산국제금융금융연수원	2
	코스콤	2
	한국금융투자협회	7
	부산국제금융진흥원	21
	대한상사 중재원 & 아태해사 중재센터	2
3, 40~47	한국자산관리공사	625
5, 36~39, 54, 63	한국예탁결제원	403
4, 30~35	한국남부발전	489
7, 12~13, 23~27	한국주택금융공사	685
22	KDB산업은행	34
8	기술혁신지원센터	80
9	역외기업 육성센터	10
21~22(b-space)	블록체인 기업 등	30
21	한국무역보험공사	18
20	한국수출입은행	34
6, 10~11, 19	주택도시보증공사	440
14	신용보증기금	40
9	부산은행	6
	한국증권금융	6
	국제식물검역인증원	20
2	우리은행	15
	NH금융플러스센터	12
1	국민은행	8
어린이집	HF 보금자리 어린이집	
	푸른바다 어린이집	
	BIFC 어린이집	

개별 건물	총인원	1406
기술보증기금		360
한국은행 부산본부		75
부산은행 본사		971

BIFC 2단계 D-valley 입주기관	총인원	638
7~10	한국자산관리공사 디지털 스페이스	169
11~15 (U-space BIFC)	핀테크 기업	344
16~17	삼성중공업 R&D 센터	120
11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5

부록

부산금융중심지 일반 현황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경과

- 2007년 12월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 2008년 04월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 2008년 11월 :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울, 부산, 인천, 제주, 경기)
- 2009년 01월 : 해양·파생금융특화 금융중심지 ‘부산’, 종합금융중심지 ‘서울’ 지정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조성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1번지 일원
- 면적 : 102,352㎡
- 복합 사업개발 계획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토지면적	24,856㎡	12,276㎡	10,292㎡
용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오피스 및 오피스텔, 호텔, 공연장, 상업시설 등	업무시설, 공공생활시설
건축규모	197,169㎡, 지하 4층, 지상 63층	183,132㎡, 지하 7층, 지상 49층 · 36층(U자형 2개동)	147,000㎡ 45층
사업기간	2008. 4 ~ 2014. 6	2015. 8 ~ 2018. 11	2020 ~ 2025(예정)
개발현황	2014. 12월, 입주완료	2018. 12월, 입주완료	-

- 개별 사업개발

구분	기술보증기금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은행
규모	지하 2층, 지상 15층	지하1층, 지상 4층	지하3층, 지상 23층
착공/준공	2009. 02 / 2011. 05	2011. 01 / 2013. 06	2011. 12 / 2014. 07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지원 체계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위원장 : 금융위원장)

금융중심지 관련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관계기관 간 의견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부산광역시(금융블록체인담당관)

부산 국제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금융산업에 관한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

금융중심지 지원센터(금융감독원)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유치, 금융중심지 조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

부산국제금융진흥원(BFC)

부산시가 국제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금융 관련 중·장기적인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및 금융산업 활성화에 기여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관련 주요 일정

· 부산금융중심지 기반 조성

- 2009년 7월,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마스터 플랜 용역 실시
- 2010년 8월, 부산금융중심지를 해양·파생분야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기본계획* 수립
(* 2010. 5 한국금융연구원 용역보고서)
- 2014년 6월, 부산국제금융센터 1단계 복합개발사업(63층) 준공
※ 준공식: 2014. 8. 22
- 2014년 말, 이전 공공 금융기관 및 지역금융기관 입주
※ 이전공공기관(5), 지역기관(3), 해양금융기관(4), 개별기관(3)
- 2015년 4월, 2020년까지 총 4개*부문 12개 과제 단계별 추진
(*해양파생특화 중심지 구축, 국제수준 금융 인프라 구축, 지역금융산업 활성화, 금융중심지 기본환경 조성)
- 2015년 8월, 부산국제금융센터 2단계 착공
- 2018년 11월, 부산국제금융센터 2단계 준공
- 2020년 7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출범
- 2021년 5월, 국제금융네트워크 'FC4S' 정식회원 가입
- 2022년 3월,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착공
- 2024년 6월, 금융기획발전특구 지정

· 해양·파생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정책의 추진성과

<해양금융부문>

- 한국선박금융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점 개소(2014년 10월)
- KSF 선박금융 부산국제금융센터 본부 개소(2014년 11월)
- 해양금융종합센터 개소(2014년 11월)
- 한국해양보증보험 보험업 인가(2015년 6월)
- 캠프선박운용 부산이전(2015년 6월)
- 한국선박해양 개소(2017년 4월)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2018년 7월)

<파생금융부문>

- 한국거래소 내 파생상품연구센터 설립(2012년 2월)
- 금리스왑거래 청산업무(CCP) 개시(2014년 3월)
- 금거래소 개소(2014년 3월)
- 탄소배출권 거래소 개소(2015년 1월)
- 청산결제본부 출범(2021년 5월)

· 지역 내 금융관련 전문인력 확보

-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설립(2014년 9월)

· 국제 금융관련 교육연구기능 확충

- 국제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개소(2016년 9월)

· 부산금융중심지 홍보 및 국내외 이미지 제고

- 매년 2회 유럽·북미·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IR 실시
- 한국선박금융포럼, 부산국제금융컨퍼런스 등 국제회의 개최
 - IOMA(세계옵션시장협회) 총회 : 2013. 5. 5. ~ 7. 파라다이스 호텔
 - FIA(국제선물산업협회)컨퍼런스 : 2013. 6. 12. ~ 13. 파라다이스호텔
 - ACSIC(아시아신용보완기관연합)총회 : 2013. 11. 12. ~ 14. 조선호텔
 - IDB(미주개발은행) 총회 : 2015. 3. 26. ~ 29. 벅스코
 - FATF/APG(자금세탁방지 국제회의) : 2016. 6. 18. ~ 24. 파라다이스호텔
 -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총회 : 2018. 5. 21. ~ 25. 벅스코
 - KOAFEC(한-아프리카장관급경제협력회의) : 2023. 9. 12.~9. 15. 부산 아난티 힐튼
- 국제금융센터지수(GFCI36) 런칭 심포지엄 개최 : 2024.9.24.

·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금융중심지 내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세제지원 일몰기한 연장*

*법인세 또는 소득세 : '25. 12. 31일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2항), 취득세 : '26. 12. 31.일까지로 연장(부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1항)

· 금융기획발전특구 지정 현황

-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 위치 : BIFC 3단계 및 북항재개발지역 2단계
 - 면적 : 75만 976㎡(문현 2만 7,266㎡, 북항 72만 3,710㎡)



inside 부산금융 발간 목록



Vol. 1 2012년 5월(창간호)



Vol. 2 2012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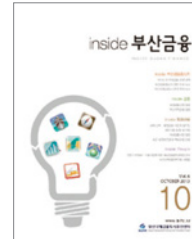
Vol. 3 2012년 12월



Vol. 4 2013년 4월



Vol. 5 2013년 7월



Vol. 6 2013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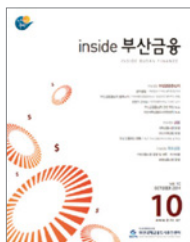
Vol. 7 2014년 1월



Vol. 8 2014년 4월



Vol. 9 2014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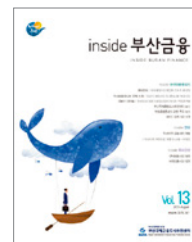
Vol. 10 2014년 10월



Vol. 11 2015년 1월



Vol. 12 2015년 5월



Vol. 13 2015년 8월



Vol. 14 2015년 11월



Vol. 15 2015년 12월



Vol. 16 2016년 6월



Vol. 17 2016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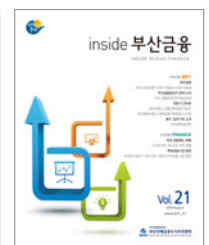
Vol. 18 2016년 12월



Vol. 19 2017년 8월



Vol. 20 2017년 12월



Vol. 21 2018년 8월



Vol. 22 2018년 12월



Vol. 23 2019년 10월



Vol. 24 2019년 12월



Vol. 25 2020년 12월



Vol. 26 2021년 6월



Vol. 27 2021년 12월



Vol. 28 2022년 6월



Vol. 29 2022년 12월



Vol. 30 2023년 6월



Vol. 31 2023년 12월



Vol. 32 2024년 7월



Vol. 33 2024년 11월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New opportunities

The Global Financial Hub, **Busan**

**Busan designated as a Special Financial Opportunity Zone,
heralding a new financial ecosystem**

Busan, as a Special Financial Opportunity Zone, offers substantial benefits for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corporate tax exemptions and additional incentives. Financial institutions can be exempt from corporate tax for up to five years. For large-scale investments, subsidies and additional incentives are also available.

With renewed incentive program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the 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aspires to harness the world's premier financial ecosystem, evolving into a **Global Financial Hub**.

Experience the future in Busan today



Contact info@kbfc.or.kr



부산국제금융진흥원
Busan Finance Center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52층
TEL. 051-631-0296 FAX. 051-633-0398 www.kbfc.or.kr